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술렁이는 프랑스 출판계

자아도취적인 정치 출판물에는 냉정한 반응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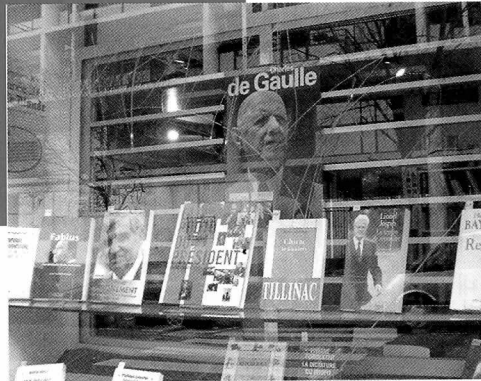
2002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4월 21일 7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수도 파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를 화제로 꺼내는 것을 꺼리는 프랑스 사람들의 성향 때문인지, 남자들이 모여 떠들며 잔을 기울이는 동네 선술집에서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선거 관련 토론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를 뚫어지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선거운동에 책 활용하는 프랑스 대권후보들

하지만 프랑스 출판계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지난해 9월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분주함의 결과물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후보들의 저서가 서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공화국의 현 수반인 자크 시라크 후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직접 책을 출간하지는 않았으나, 대신 영부인인 베르나데트 시라크와 파트릭 드 카롤리스가 대담한 것을 묶은 《대화》(포켓)가 출간됐다. 이 책에서 베르나데트 시라크는 자크 시라크의 인간적 모습을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의 든든한 배우자 역할을 토크하고 있다. 그리고 총리인 리오넬 조스팽 후보도 알랭 뒤아멜과 나눈 《대답해야 할 때》(스톡)라는 대담록을 통해 자신의 정치 역정과 정치 노선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코르스 문제를 두고 노골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같은 사회당의 조스팽 내각에 반발하다 내무장관직을 사임한

사진은 파리 13구 초록노동자 서점의 선거 관련 출판물 디스플레이.



장 피에르 슈벤느랑 후보(《결정할 수 있는 용기》(로베르 라퐁))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꾸준히 좌파 혁신의 방안을 모색해온 로랑 파비우스(《2002~2007 현대 좌파의 정비소》(플롱)) 후보 같은 사람들은 그간의 정치 활동에서도 꾸준히 필력을 과시해온 사람들이어서 저서 출간이 어색하지 않다. 이들은 정치 활동에 출판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UDF의 젊은 당수인 프랑소와 바이루 후보는 정치 신세 대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대교체》(그라세에파스켈)라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구호를 제목으로 채택해 책을 펴냈다. 그는 여느 정치가들과 달리 시앙스포(정치학교)나 ENA(국립 행정학교) 출신이 아니며 의외로 문학 교수 자격증을 획득한 인물이다. 그는 《앙리 4세》(플라마리옹)라는 역사 전기물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의 이런 경력상의 참신함에도 그에 대한 지지도는 미약하다.

현역 법관의 정당비판서 인기 끌여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정치 현실을 환기시키는 출판물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붐을 이루고 있다. 가령 21세기에 들어와 본격화하기 시작한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프랑스 정부가 보여주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공공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나

타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례를 들어가며 분석한 책으로 《우리나라》(로베르 라퐁)나 《침묵하는 공화국》(플롱) 등이 있고, 정당 파벌주의적인 프랑스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제로 정치》(파이야르)도 있다. 또한 정치 권력의 야만성 문제를 역사적으로 짚어 나가면서 오늘날 정치 권력의 맹목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한 《불복중의 찬양》(르포미에)은 정치 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 가운데 확실한 베스트셀러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현직 판사인

에릭 알펜이 쓴 《은둔 속의 7년》(드노엘)이다. 이 책은 시라크의 소속 정당이기도 한 RPR 관련 인물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지은이 알펜 판사는 7년 전에 프랑스 중도 우파 정당인 RPR과 관련된 기업의 세무비리를 조사하다가 결국 자신의 가족이 RPR 관련 인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어느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다른 정당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판사가 어느 유력 정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안으로는 정치적 견해를 뚜렷이 견지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이와 같은 후보들의 선거 관련 저서들이나 정치비판서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비록 치즈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할지라도 자아도취나 이전투구의 정치 출판물에 대해서는 냉정하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국가든 권력이든 그로부터 개인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본이념을 지키는 것에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